中國語文學 第57輯(2011. 6) 27-52쪽

# 陸游 詞의 對比 修辭法

李 致 洙*

<目 次>

Ⅰ. 들어가며
Ⅱ. 육유 사의 대비 수사법 운용 유형
Ⅲ. 육유 사의 대비 수사법 운용 특색
Ⅳ. 끝맺으며

## Ⅰ. 들어가며

'對比'는 여러 작가들이 상용하는 修辭法 중의 하나로, 두 종류의 대립되는 사물이나 혹은 동일한 사물의 두 가지 서로 다른 면을 한 자리에 놓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대비를 운용하면 대립되는 사물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보여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杜甫의 유명한 시구 "부귀한 집엔 술과 고기 냄새 퍼지는데, 길에는 얼어 죽은 사람들의 뼈가 뒹군다.(朱門酒肉臭, 路有凍死骨)"(<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는 말은 대비 수법을 사용하여 당시 사회의 모순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例이다. 대비의 운용은 시인의 감정 세계를 잘 드러내는 데에도 유용한 수사법이다. 본고에서는 육유의 詞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대비 수사법의 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것은 南宋의 대표적인 詞人 중의 한 사람인 육유의 사를 읽어보면 그가 여러 수사법 중 대비 수사법을 많이 사용하였고, 또 다른 작가와 구별되는 대비 수사법 운용 특색을 육유의 사에서 볼 수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www.kci.go.kr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대비'라는 수사법의 운용을 통하여 육유 사의 특색을 새로이 살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육유가 사에서 대비 수사법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 유형과 특색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 Ⅱ. 육유 사의 대비 수사법 운용 유형

陸游의 詞에 보이는 '對比' 수사법 사용의 例를 몇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時空對比

<蝶戀花－離小益作>　접련화－소익을 떠나면서 짓다

陌上簫聲寒食近.　길거리에 엿 파는 피리 소리 들리니 한식이 가까워졌구나.
雨過園林,　동산에 비 지나가니
花氣浮芳潤.　꽃향기는 향기롭고 촉촉한 꽃 위로 피어오르네.
千里斜陽鐘欲暝,　저녁 해 천리에 비끼고 종소리 속에 날은 저물려 하는데
憑高望斷南樓信.　높은 곳에 올라 저 멀리 바라봐도 그리운 임의 소식은 끊어졌네.

海角天涯行略盡.　바다 구석 하늘 끝까지 거의 다 다녀보았네.
三十年間,　30년간
無處無遺恨.　한스러움 남겨지지 않은 곳 없네.
天若有情終欲問,　하늘도 만약 감정이 있다면 끝내 물어보고 싶네.
忍敎霜點相思鬢.　어쩌면 임 그리워하는 사람 머리에 무정하게 흰 서리 내리게 할 수 있는 건지.



www.kci.go.kr

이 사는 육유가 48세 때 乾道 8년(1172년) 초에 夔州를 떠나 南鄭으로 부임 가는 도중, 小益을 지나면서 지은 것이다. 上片에 보이는 '南樓'는 그리워하는 사람이 거처하는 곳을 가리키고 '南樓信'은 그리워하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1] 上片의 끝 두 구절에 이미 그리워하는 임과 공간적으로 '千里'나 떨어져 있으며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지만 그리운 임의 소식은 끊어진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이것을 바로 이어 下片에 들어서자 '바다 구석 하늘 끝까지'라고 하여 위의 '천리'보다 공간적으로 훨씬 더 멀리 임과 떨어졌음을 말하였고, '30年間'이라고 하여 그 이별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되었음을 말하였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대비를 통하여 '恨이 남겨지지 않은 곳이 없는' 아픔을 토로하고 있다. 이 사에서 육유는 時空의 對比 표현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고향을 멀리 떠나와 객지를 떠도는데 나이는 자꾸 들어 늙어가는 것에 대한 깊은 감개를 나타내었다.

2. 今昔對比

<鷓鴣天-送葉夢錫>　자고천-섭몽석을 보내며

家住東吳近帝鄉,　집은 동오 땅이라 임금님 계시는 곳 가까운 마을에서
平生豪擧少年場.　평소 젊은이들 모이는 곳에서 호방한 행동했네.
十千沽酒青樓上,　萬錢의 좋은 술 기루에서 사고
百萬呼盧錦瑟傍.　비단 거문고 옆에서 백만 량 노름판 벌렸네.

身易老,　몸은 쉽게 늙고
恨難忘,　恨은 잊기 어려운데
尊前贏得是淒涼.　술잔 앞에서 얻은 것은 처량함뿐.
君歸爲報京華舊,　그대 돌아가면 서울의 옛 친구들에게 내 소식 알려 주구려

1) 王雙啓, ≪陸游詞新釋輯評≫(北京: 中國書店, 2001), 42쪽.



www.kci.go.kr

一事無成兩鬢霜. 한 가지 일도 이룬 것 없이 양쪽 귀밑머리에 흰 서리만 내렸다고.

이 사는 건도 9년, 成都에서 葉夢錫을 전송하면서 지었다. 상편의 옛날 젊은 시절의 '豪擧'와 하편의 49세가 된 지금의 '淒涼'이 서로 현격한 대비를 이루는 가운데 작자의 신세에 따른 감개를 드러내었다.

3. 情景對比

<桃源憶故人—幷序> <도원억고인>과 서문

三榮郡治之西, 因子城作樓觀, 曰高齋. 下臨山村, 蕭然如世外. 予留七十日, 被命參成都戎幕而去, 臨行徙倚竟日, 作<桃源憶故人>一首.(영주성 서쪽에 내성을 따라 누각을 짓고 이름을 高齋라 불렀다. 아래로 산촌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마치 세상 바깥에 있는 듯 조용하다. 나는 칠십 일을 머물다가 명을 받아 成都 막부로 가게 되었는데 떠날 때 잠깐 들러 배회하면서 <도원억고인> 한 수를 지었다.)

斜陽寂歷柴門閉, 석양에 조용히 사립문은 닫혀 있고
一點炊煙時起. 한 줄기 밥 짓는 연기 때때로 일어난다.
鷄犬往來林外, 닭과 개들은 숲 밖으로 이리저리 다니고
俱有蕭然意. 온통 적적한 기운 감도네.

衰翁老去疎榮利, 늙은 나는 나이 들며 명예나 이익과는 소원해지고
絶愛山城無事. 아무 일 없는 이 산성을 참으로 좋아했네.
臨去畫樓頻倚, 떠나기 앞서 채색 누각에 자주 기대 멀리 바라보니
何日重來此. 언제나 또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사는 淳熙 2년(1175년) 정월 10일 榮州를 떠나면서 지은 것이다. 상편에는 영주성 밖 산촌의 한적한 경치를 묘사했고, 하편에는 영주를 떠나기 아쉬워하는 마음을 토로했다. 상편의 경치는 대도시의 繁華와는 거리가



www.kci.go.kr

먼 외딴 城의 한적한 경치이지만 하편에서 말하듯 육유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명예나 이익을 쫓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이곳이 오히려 그에게는 잘 어울리는 곳인지라 매우 좋아하였던 것이다. 경치 묘사 속에 감정이 담겨 있고, 감정 표현 속에 경치도 자리를 같이하여 경치와 감정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으로 영주를 떠날 당시의 회포를 나타내었다.

4. 動靜對比

<太平時> 태평시

竹裏房櫳一徑深, 오솔길 깊숙한 대나무 숲에 집 한 채
靜愔愔. 인적 없이 조용하다.
亂紅飛盡綠成陰, 붉은 꽃잎 어지러이 다 떨어지자 녹음 우거지고
有鳴禽. 새 울음소리 들려오네.

臨罷蘭亭無一事, <蘭亭集序>를 본떠 쓰고 나니 아무 할 일 없어
自修琴. 손수 거문고를 손본다.
銅爐裊裊海南沈, 구리 화로에선 해남의 沈香이 하늘거리며
洗塵襟. 속세의 생각을 씻어주네.

이 사는 고향에서 지낼 때의 書齋生活을 묘사하였는데, 조용하고 閑適한 특색을 중점적으로 나타내었다. 작자는 上片에서 對比手法을 사용하였다. 우선 竹林과 綠樹는 조용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有鳴禽'이란 세 글자를 덧붙이니 '인적 없이 조용하다'는 '靜'의 의미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중국 南北朝 시기의 시인 王籍은 <入若耶溪>시에서 "매미소리 시끄러우나 숲은 한층 고요하고, 새들이 우짖어도 산은 더욱 그윽하네.(蟬噪林逾靜, 鳥鳴山更幽.)"라고 하여, '시끄러운 매미소리'로 '조용한 숲'을 더욱 부각시키고, '우짖는 새소리'로 '그윽한 산속'을 두드러지게 나



www.kci.go.kr

타내었다. 動 가운데에 靜을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왕적의 詩와 육유의 위의 詞는 둘 다 깊은 묘미를 느끼게 한다. 대나무 숲 속에 있는 집에 앉아 있자니 사방이 조용한데 간간이 들려오는 새 울음소리는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5. 虛實對比

<夜遊宮－記夢寄師伯渾>　야유궁－꿈을 적어 사백혼에게 부치다

雪曉清笳亂起,　눈 내리는 새벽 갈잎 피리 소리 어지러이 일어나고
夢遊處、不知何地.　꿈속에서 노닐던 곳 어디인지 모르겠네.
鐵騎無聲望似水.　철갑 기병들은 소리 없이 물 흐르듯 치달렸네.
想關河,　생각건대 변방 요새
雁門西,　雁門關 서쪽이나
青海際.　青海湖 근처이리라.

睡覺寒燈裏.　잠에서 깨니 추운 밤 등불 속에
漏聲斷、月斜窓紙.　물시계 소리 끊기고 달빛은 창문 종이에 비스듬히 비쳐 든다.
自許封侯在萬里.　집 떠나 만리 밖에서 제후로 봉해지리라 자부심 강했었네.
有誰知,　그 누가 알아줄까
鬢雖殘,　귀밑머리 비록 희끗희끗하지만
心未死!　마음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는 乾道 9년(1173년)에서 淳熙 4년(1177년) 사이에 지어진 것이다. 육유가 사에서 대비수법을 운용하는 또 다른 특색으로는 現實과 夢境의 虛實對比를 들 수 있는데, 이 사의 경우, 상편은 꿈속의 정경을 묘사했고, 하편은 꿈에서 깬 뒤의 정경을 그려, 서로 강렬한 대조를 이룬다. 육유가 평생에 걸쳐 희망해 온 것은 바로 邊境에 출정해 오랑캐를 몰아내고 잃어



www.kci.go.kr

버린 조국의 강토를 되찾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육유의 詩나 詞가 悲憤慷慨의 색채를 띠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슬픈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호기를 잃지 않는 것이 육유의 작품 세계의 특색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는 육유 사의 특색을 잘 보여 주는 작품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好事近> 호사근

混迹寄人間,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아가며
夜夜畫樓銀燭. 밤마다 누각에서 은촛대에 불 밝혔네.
誰見五雲丹竈, 오색구름 떠있는 단약 만드는 부엌에서
養黃芽初熟. 노란 싹을 배양하여 이제 잘 숙성된 것을 누가 알 수 있으리오.

春風歸從紫皇遊, 봄바람 타고 돌아가 紫皇을 따라 노닐고
東海宴暘谷. 東海라 暘谷에서 연회를 벌이네.
進罷碧桃花賦, <碧桃花賦>를 지어 올렸더니
賜玉塵千斛. 옥가루 만 말을 하사하시네.

이 사는 상편에서는 밤마다 丹藥을 만든 일을 이야기하였고, 하편에서는 단약을 먹고 신선이 된 뒤 신선세계에 올라가 紫皇을 따라 노닐고 연회에 참석하기도 하며 또 글을 지어 크게 칭찬과 賞을 받은 일을 노래하였다. 상편은 실제의 생활을 묘사한 것이고, 하편은 想像 속의 일로, 상편과 하편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

6. 彼我對比

<沁園春－三榮橫谿閣小宴> 심원춘－영주의 황계각에서의 연회

當時豈料如今, 그 옛날엔 어찌 예상이나 하였겠나, 지금



www.kci.go.kr

漫一事無成霜鬢侵.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한 채 헛되이 머리에 흰서리만 내릴 줄이야.
看故人强半, 옛 친구들을 보니 반 이상이
沙堤黃閣, 고위 관리가 되어
魚懸帶玉 魚袋를 늘어뜨리고 玉帶를 두르며
貂映蟬金. 담비 꼬리와 매미 날개로 장식한 관을 쓰고 있네.

처음 두 구는 現在와 過去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며 이어서 4구는 이런 自己와 '故人'을 서로 비교하였다. 옛 친구들은 태반이 이미 고위 관리가 되어 멋진 복장을 하고 功名을 이룬 데에 비해, 詞人 자신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마음 비록 굳으나, 천자를 배알할 길이 없어"[2] 고국의 옛 땅을 수복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萬里 他鄕을 떠돌아다니는 淒涼한 신세에 처해 있음을 탄식하였다.

赤壁詞-招韓无咎遊金山 적벽사-한무구를 불러 금산을 노닐다

禁門鐘曉, 궁궐에서 새벽 종 울릴 때
憶君來朝路, 아침 조회 오던 그대 모습 생각나니
初翔鸞鵠. 마치 난새와 고니가 바야흐로 하늘 높이 나는 듯 하였네.
西府中臺推獨步, 추밀원과 상서성에선 독보적인 존재였고
行對金蓮宮燭. 다닐 땐 金蓮花 촛불을 들고 다녔네.
蹙繡華韉, 촘촘히 수놓은 화려한 말안장 깔개에
仙葩寶帶, 꽃 모양 장식 허리띠를 하여
看卽飛騰速. 그대 출세 빠른 것을 보았네.
人生難料, 인생살이 예상하기 어렵구려
一尊此地相屬. 한 잔 술을 이곳에서 서로 권하게 될 줄이야.

回首紫陌靑門, 회상해보면 서울 거리
西湖閒院, 西湖의 한적한 정원에

2) "許國雖堅, 朝天無路, 萬里淒涼誰寄音?"(<沁園春-三榮橫谿閣小宴>)



www.kci.go.kr

鎖千梢修竹. 천 그루 긴 대나무 빽빽하였네.
素壁棲鴉應好在, 흰 벽에 쓴 검은 글씨는 아마 그대로 있으리라마는
殘夢不堪重續, 잠에서 깬 꿈은 다시 이을 수 없네.
歲月驚心, 세월은 빨리 흘러 마음을 놀라게 하며
功名看鏡, 큰 일 못 이루고 거울을 자주 보니
短鬢無多綠. 짧아진 귀밑머리엔 검은 머리카락 얼마 없네.
一歡休惜, 서로 만났으니 유감없이 한 번 즐겨야 하니
與君同醉浮玉. 그대와 함께 떠있는 옥 같은 산에서 취해보세나.

이 사는 乾道 원년(1165), 韓无咎를 鎭江에서 만났을 때 지은 것이다. 上片은 몇 년 전 한무구가 서울에 있을 때 조정의 중요 부서에서 근무하고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득의만만 출세하였던 점을 칭송하였고, 下片은 한무구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은 이룬 일 없이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이제 짧아진 귀밑머리에 검은 머리카락이라곤 얼마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7. 기타

<卜算子－詠梅> 복산자－매화를 읊다

驛外斷橋邊, 역사 밖 끊어진 다리 옆에
寂寞開無主. 매화가 적막하게 핀 채 돌보는 이 없네.
已是黃昏獨自愁, 어느덧 황혼에 홀로 시름겨워 하는데
更著風和雨. 게다가 바람 불고 비까지 내린다.

無意苦爭春, 굳이 봄을 다툴 마음이 없어
一任羣芳妬. 꽃들이 시샘하는 말든 내버려둔다.
零落成泥碾作塵, 꽃잎 떨어져서 진흙이 되고 부스러져 티끌이 될지라도
只有香如故. 다만 향기만은 옛날과 같다네.



www.kci.go.kr

이 작품은 매화를 읊으면서 동시에 작자 자신의 인품을 비유하였다. 매화의 '無意苦爭春'은 여러 꽃들의 '有意苦爭'과 선명한 대비를 형성한다. '一任羣芳妬'는 매화의 굳은 氣質을 표현하며, 동시에 시인의 굳은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朝中措>의 上片에서는 매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은 부분이 있다.

| | |
|---|---|
| 幽姿不入少年場, | 매화의 그윽한 자태는 젊은이들 모이는 곳엔 들어가지 않고 |
| 無語只淒涼. | 말없이 처량하기만 하네. |

매화는 幽雅하고 幽靜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少年場'의 떠들썩한 분위기와는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일반인은 대부분 少年場에 열렬한 관심을 가지나 매화는 그것을 피하고 멀리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매화가 비록 고결하나 필연적으로 또 고독하기도 하다.

<烏夜啼> 오야제

| | |
|---|---|
| 從宦元知漫浪, | 벼슬살이 정처 없이 떠돈다는 것 원래 알았거니와 |
| 還家更覺淸眞. | 집으로 돌아오니 참된 맛을 더욱 느끼겠네. |
| 蘭亭道上多修竹, | 蘭亭의 길엔 높은 대나무 많고 |
| 隨處岸綸巾. | 곳곳에서 두건을 벗고 편하게 행동하네. |

밖에 나가 벼슬살이하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을 수 없는 데 이것은 본래 육유 자신이 좋아하는 인생의 길이 아니다. 이 詞는 고향의 집에서 보내는 생활의 즐거움을 묘사하였는데, 처음의 두 구는 "從宦"과 "還家"를 對比하면서 前者를 "漫浪"이라 말하고, 後者를 '淸眞"이라 말하여, 관리생활에서 이제 고향에 돌아온 기쁨을 강조하였다.



www.kci.go.kr

<漁父> 어부

長安拜免幾公卿, 서울에선 고관들 몇 사람이나 임명받고 파면되겠지만
漁夫橫眠醉未醒. 어부야 가로 누워 잠들어 취한 채 깨어나지 않는다.
煙艇小, 안개 자욱한 강에 배는 조그맣고
釣車腥, 낚시실패엔 비린내 대단한데
遙指梅山一點靑. 저 멀리 푸른 색 한 점 梅山을 가리킨다.

이 사는 시작하는 처음 두 구에서 서울의 관리 세계와 육유의 고향 산음의 어부 생활 간의 강렬한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1구는 관직의 임명과 면직이 되풀이되는 정치 권력이 무상한 세계이고, 제2구는 태평 자유의 세계이다. 관직 임명과 파면이 무시로 벌어지는 서울을 떠나 고향에서는 술에 취해 마음껏 잠들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水龍吟-春日遊摩訶池> 수룡음-봄날에 摩訶池에 놀러가서

摩訶池上追遊路, 摩訶池 위에 노니는 길을 쫓아 따라가니,
紅綠參差春晩. 저물어 가는 봄에 붉고 푸른빛들이 뒤섞여 이리저리 흩어져 있네.
韶光妍媚, 봄 경치 빼어나게 아름다운데,
海棠如醉, 해당화는 취한 듯하고
桃花欲煖. 복숭아꽃은 따뜻해져 꽃을 피우려고 하네.
挑菜初閒.[3] 挑菜節이라 비로소 한가롭고
禁煙將近, 寒食이 바야흐로 가까워 오니
一城絲管. 성에 온통 풍류소리 넘치네.
看金鞍爭道, 금으로 장식한 말안장은 길을 다투고,
香車飛蓋, 香木으로 장식한 수레와 날듯이 달리는 수레는
爭先占,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을 보네.
新亭館. 신정관을

3) '挑菜'는 宋代 풍속에 음력 2月 2日에 사람들이 교외에 나가 놀면서 새 나물을 찾아내 뜯고 푸른 풀을 밟으면서 봄날의 흥취를 즐기는 것을 가리키며, 이 날을 '挑菜節'이라 불렀다.



www.kci.go.kr

| | |
|---|---|
| 惆悵年華暗換, | 세월이 슬며시 바뀌는 것을 아주 슬퍼하고 |
| 黯銷魂､雨收雲散. | 낙담하여 멍하게 정신 나간 듯 하니 비가 구름을 거두어 흩뿌리네. |
| 鏡奩掩月, | 鏡奩은 달을 가리고 |
| 釵梁折鳳, | 비녀는 봉황을 끊고 |
| 秦箏斜雁. | 秦箏은 기러기를 비스듬히 비추네. |
| 身在天厓, | 이내 몸은 하늘 끝, |
| 亂山孤壘, | 험준한 산과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 |
| 危樓飛觀. |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누각에 있도다. |
| 歎春來只有, | 탄식하노라 봄이 오니 오직 |
| 楊花和恨, | 愁恨을 머금은 버들꽃만이 |
| 向東風滿. | 동풍을 향해 가득 찬 것을. |

이 詞는 成都에서 봄놀이를 묘사한 것이다. 上片과 下片은 鮮明하고도 강렬한 對照를 형성하였다. 上片이 성도의 여러 사람들의 즐거운 봄놀이이라면, 下片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 비탄에 젖어있는 육유 자신을 그렸다.

이상으로 육유의 사에서 대비 수법을 운용한 예를 추출하여 그 성격에 따라 時空對比, 今昔對比, 情景對比, 動靜對比, 虛實對比, 彼我對比,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기타'류에 넣어 총 일곱 종류로 나누고, 각기 해당 작품의 예를 살펴보았다. 이것으로 육유의 사에는 대비 수법이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사람의 심리와 경물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Ⅲ. 육유 사의 대비 수사법 운용 특색

### 1. 유형, 내용상

육유의 사에는 각종 대비 수사법의 표현이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www.kci.go.kr

今昔對比가 수량이나 표현상 특색을 보인다. 이러한 대비 수법을 사용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 주된 내용이 대체로 壯志를 이루지 못한 비애를 나타낸 것이 대다수이다. 특히 特定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비 표현이 많다. 그것은 空間의 성격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 | | 時間 | | |
|---|---|---|---|---|
| | | 昔 | ↔ | 今 |
| 유형 1) | 空間 | 首都 臨安 | ↔ | 蜀地, 또는 고향 山陰 |
| 유형 2) | 空間 | 南鄭 | ↔ | 蜀地, 또는 고향 山陰 |
| 유형 3) | 空間 | 蜀地 | ↔ | 고향 山陰 |

아래에서는 유형별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 1)

| 時間 | 昔 | ↔ | 今 |
|---|---|---|---|
| 空間 | 首都 臨安 | ↔ | 蜀地, 또는 고향 山陰 |

<訴衷情> 소충정

青衫初入九重城, 내가 하급관리 되어 처음으로 서울에 들어가
結友盡豪英. 친구로 사귀는 이들 모두가 영웅호걸이었네.
蠟封夜半傳檄, 밀랍으로 편지 봉해 한밤중에 격문을 전하고
馳騎諭幽幷. 말을 달려 幽州와 幷州로 가서 알려 주게 하였네.

時易失, 때는 놓치기 쉽고
志難成, 뜻은 이루기 어려운데
鬢絲生. 귀밑에 흰 머리 생겨났네.
平章風月, 바람과 달을 감상하고
彈壓江山, 강과 산을 시로 나타내는 것도
別是功名. 또 다른 사업이로다.



www.kci.go.kr

이 사는 淳熙 16년, 육유가 고향 山陰에 돌아간 뒤에 지어졌는데,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이다. 상편은 지난날 서울에서 영웅호걸들을 사귀고 군사적인 임무를 맡아 큰 활약을 하던 일에 대한 회상이고, 하편은 현재 고향에서 늙어가는 자신을 읊었다. 상편과 하편의 강렬한 대비 속에 침울한 감개가 나타나 있다. 하편의 처음 두 구도 '時易失'과 '志難成'이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비통함을 나타내고 있다. 끝의 세 구에서는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는 것만이 공명 사업이 아니라 고향에서 산수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시로 나타내는 것도 그에 못지않다고 항변을 하여, 한편 씁쓰레한 웃음 뒤에 감춰진 침통함을 느낄 수 있다.

육유가 왜 이전에 서울에서 보낸 때를 자주 회상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繡停針> 상편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 | |
|---|---|
| 歎半紀, | 탄식하노니 요 몇 년 동안 |
| 跨萬里秦吳, | 만리 되는 秦 땅과 吳 땅 돌아다녔는데 |
| 頓覺衰謝. | 문득 노쇠해졌음을 깨닫겠네. |
| 回首鵷行, | 회상해 보니 조정에서 백관들과 나란히 서고 |
| 英俊並遊, | 뛰어난 인물들과 함께 노닐고 |
| 咫尺玉堂金馬. | 지척거리에 玉堂殿과 金馬門이 있었더랬네. |
| 氣凌嵩華. | 기개는 嵩山과 華山을 능가했고 |
| 負壯略、縱橫王霸. | 웅장한 책략 지니고 王道와 霸道를 거침없이 논하였지. |
| 夢經洛浦梁園, | 꿈에 洛水 물가와 梁孝王의 정원을 지나갔고 |
| 覺來淚流如瀉. | 깨어나서는 눈물이 쏟아지듯 흐른다. |

이 사는 순희 5년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지은 것이다. 전체적으론 젊은 날의 관리생활과 노년의 退隱 생활을 대비하고 있다. 상편의 '回首鵷行' 이하는 조정에서 관리생활을 하며 뛰어난 인물들과 교류를 하며 기개가 드높았던 시기에 대한 회상이다. 그러나 끝부분의 두 구는 모든 기대가 무너진 이후의 슬픔의 토로이다. '梁園'은 漢代 梁孝王이 지은 정원인데,



www.kci.go.kr

양효왕은 이곳에 賦로 뛰어난 司馬相如와 枚乘 등의 문인들을 불러 시와 부를 지으며 음악과 가무를 즐겼다고 한다. 이들 옛날의 문인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육유는 자신의 신세를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육유가 서울을 회상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다음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南鄕子> 남향자

早歲入皇州, 젊어서 천자 계시는 서울에 들어가
罇酒相逢盡勝流. 술통 앞에 만난 이들 모두가 뛰어난 인사들이었네.
三十年來眞一夢, 30년 세월이 정말 한 바탕 꿈만 같아
堪愁, 참으로 시름겨운데
客路蕭蕭兩鬢秋. 나그네 길에 희끗희끗한 두 귀밑머리에 가을이 찾아왔네.

이 사는 상편에서 今昔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젊어서 서울에 가서 명사들을 사귀던 기억과 그 뒤 30년이 흘러 나이 들어 객지를 떠돌며 憂愁로 가득한 생활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그간의 심리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형 2)

| 時間 | 昔 | ↔ | 今 |
|---|---|---|---|
| 空間 | 南鄭 | ↔ | 蜀地, 또는 고향 山陰 |

<漢宮春-初自南鄭來成都作> 한궁춘-연초에 남정에서 성도에 와서 짓다

羽箭雕弓, 새 깃 화살에 꽃무늬 활을 들고
憶呼鷹古壘, 옛 성에서 매를 부르고
截虎平川. 광야에서 호랑이 잡던 일 회상한다.
吹笳暮歸野帳, 피리 불며 저녁에 야외 막사로 돌아오니
雪壓靑氈 눈이 푸른 장막을 뒤덮었네.



www.kci.go.kr

淋漓醉墨, 취하여 쓴 글씨 힘이 넘쳐
看龍蛇、飛落蠻牋. 용과 뱀이 종이 위로 날아 떨어지는 듯 하였네.
人誤許、詩情將略, 사람들은 내가 시인으로 장수로 뛰어나다 잘못 칭찬하였으니
一時才氣超然. 그땐 나도 재기가 빼어났었네.

何事又作南來, 무슨 일로 또 남쪽으로 와서
看重陽藥市, 중양절에 약령시
元夕燈山. 정월 보름날 밤에 산 같이 쌓은 燈籠을 보게 되었나.
花時萬人樂處, 꽃 피는 시절에 많은 사람들 즐거워하는 곳에서
欹帽垂鞭. 모자 비스듬히 쓰고 말채찍 늘어뜨린 채 걸어간다.
聞歌感舊, 노래 소리 들으며 옛날 생각하며
尙時時、流涕尊前. 때때로 술잔 앞에서 눈물을 흘리네.
君記取、封侯事在, 그대 명심하시라 제후로 봉해지는 일 하는데
功名不信由天. 큰 공 세우는 것이 하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네.

이 사는 육유가 南鄭을 떠나 成都에 온 뒤, 성도에서의 생활과 남정의 생활을 대비하면서 자신의 느낌과 희망을 나타내었다. 上片은 자신이 남정의 전방에서 보낸 軍營 생활을 회상하였다. 南鄭에서 호랑이를 때려잡은 일을 비롯하여 당시에 그가 意氣가 드높고 가슴에 호쾌한 감정이 가득하던 면모가 잘 그려져 있다. 下片은 성도에 도착한 이후 보고 느낀 것을 적었다. 이때 육유는 成都府 安撫司에서 參議官으로 있었는데 實權이 없고 일도 별로 없이 한가롭고 무료하게 지내어 남정에서의 생활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끝의 세 구에서는 抗戰의 굳은 의지와 스스로 격려하는 말이다. 육유는 南鄭에서 8개월 동안 종군 생활을 하며 北伐의 기대를 한껏 품었으나 결국 이것이 무너지고 남정에서 成都로 오게 되었다. 이 사는 과거의 즐거웠던 한 때를 회상하는 상편과 현재의 침체된 심정을 묘사한 하편이 강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중원 수복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한 비분과 그래도 좌절 않는 굳은 신념을 나타내었다. 상편과 하편은 여러 면에서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www.kci.go.kr

| 時間 | 空間 | 地理環境 | 人物의 行動 | 人物의 心理 |
|---|---|---|---|---|
| 昔 | 南鄭 | 古壘, 平川, 雪壓靑氈 | 呼鷹, 截虎, 醉墨淋漓 | 豪放 |
| 今 | 成都 | 藥市, 燈山, 花時行樂 | 欹帽垂鞭, 聞歌感舊, 流涕尊前 | 沈痛 |

<鵲橋仙> 작교선

華燈縱博, 화려한 등불 아래 마음껏 노름하고
雕鞍馳射, 아로새긴 안장에 올라 말 달리며 활을 쏘았던
誰記當年豪擧. 그 옛날 호쾌했던 행동들을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
酒徒一半醉封侯, 술꾼들 절반은 제후에 봉해졌는데
獨去作江邊漁夫. 나만 홀로 떠나와 강가의 어부가 되었네.

이 사는 내용으로 볼 적에 육유가 晩年에 벼슬을 그만둔 뒤 집에서 閑居할 때의 작품인 듯하다. 그 옛날 남정에서 노름하고 사냥하던 호쾌한 행동과 이제 술친구들은 제후로 봉해지고 자신은 홀로 강가의 어부가 된 것을 대비하면서 자신의 壯志가 물거품이 된 것에 따른 짙은 感慨를 나타내었다.

유형 3)

| 時間 | 昔 | ↔ | 今 |
|---|---|---|---|
| 空間 | 蜀地 | ↔ | 고향 山陰 |

<風入松> 풍입송

十年裘馬錦江濱, 10년 동안 錦江에서 갓옷 입고 말 달리고
酒隱紅塵. 술 마시며 세상에 몸을 숨겼네.
萬金選勝鶯花海, 만금을 뿌려 앵무새 울고 꽃 만발한 곳 찾아
倚疎狂·驅使靑春. 매인 데 없이 행동하며 청춘을 보냈네.



www.kci.go.kr

吹笛魚龍盡出, 피리를 부니 물고기와 용도 다 나와 들었고
題詩風月俱新. 시를 지으면 바람과 달이 모두 새 모습이었네.

自憐華髮滿紗巾, 흰머리 두건에 가득한데
猶是官身. 아직도 관직에 매인 신세 스스로 가련히 여겼네.
鳳樓常記當年語, 鳳樓에서 한 그 옛날 말 항상 기억하며
問浮名、何似身親? 물어보세 뜬 구름 같은 공명이 어찌 내 몸 같이 귀하랴.
欲寄吳牋說與: 편지 부쳐 그대에 말 전하려 하니
這回眞箇閒人. 이번에야 정말로 한가한 몸이 되었다네.

이 사는 고향에 돌아와 蜀에서 지냈던 즐거웠던 생활을 회상하며 이제는 일체의 부귀공명을 떠나 소탈하고 자유로운 심정을 노래하였다. '十年'은 육유가 乾道 6년(1170)에 蜀에 가서 벼슬을 하고 淳熙 5년(1178)에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9년을 보낸 기간을 여기서는 '10년'이라고 대략적으로 말한 것이다. '錦江'은 成都 교외에 있는 하천으로 여기서는 成都를 가리키며, 전체적으로 四川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今昔對比'라고 하면 '今不如昔', 즉 '지금이 옛날만 못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육유의 이 사를 보면 반드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촉에서의 생활은 이곳을 떠난 이후에도 늘 그리워할 만큼 그에게 깊은 추억을 남겨주었으나 그래도 관리로서 매여서 지낸 점이 있었고, 또 이 시기의 관리생활이 육유가 본래 평소에 원하든 꿈, 즉 금나라를 몰아내고 중원을 수복한다는 것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호쾌한 생활을 한 기억도 있지만 동시에 뜻을 이룰 수 없어 울울하였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촉을 떠나 고향에 돌아와서는 '이번에야 정말로 한가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다. 앞의 두 유형에서는 대체로 늘 지금의 심정이 현실보다는 과거를 더 긍정하는 입장이나, 세 번째 이 유형에서는 물론 과거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지만 반드시 꼭 '과거 긍정'↔'현실 부정'의 구도로만 되어있지는 않고, 작품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긍정하는 경우도 있어, 앞의



www.kci.go.kr

두 유형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상에서 육유 사의 대비수법 운용에는 어떤 특색과 유형이 보이는데, 그것은 今昔對比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시간, 특정 공간 중심의 대비로, 과거(서울, 남정, 蜀에 있을 시기)와 현재(서울, 남정, 蜀을 떠난 시기)의 대비이다. 육유는 이러한 유형을 반복 사용하였다. 그러면 육유가 '대비'라는 수사법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 또는 동일 유형을 되풀이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실제 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육유는 그가 태어난 다음 다음 해에 宋나라가 金의 침략을 받아 徽宗과 欽宗이 포로가 되어 북쪽으로 끌려가는 이른바 '靖康의 變'이 일어나면서 북송이 멸망하고, 高宗이 南京에서 즉위해 南宋이 시작되며, 그 이후에도 宋과 金이 和親과 對立을 거듭하던 어지러운 시기를 살았다. 육유는 일생토록 金을 몰아내고 中原을 수복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으나 조정에서 主和派가 得勢한 상황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벼슬길에 나갔으나 몇 번에 걸쳐 貶謫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순탄치 못한 처지에서 수도 臨安이나 南鄭 등 그나마 그가 抗戰의 꿈을 품고 기대에 부풀었던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잊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南鄭은 당시 宋과 金이 바로 대치하던 경계의 군사 요지였는데, 육유는 이곳에서 8개월을 보낸 경험을 그 뒤 죽을 때까지 언제나 잊지 않았다. 위에서 이미 보았던 詞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수량의 詩에서 남정을 회상하고 노래하였다. "瓜洲나루터에서 밤에 눈 내릴 때 戰船을 몰고, 大散關에서 가을 바람 맞으며 鐵馬를 달렸네."[4] "작년 가을 남산에서 호랑이를 활로 쏘았고, 밤에 돌아오는 길에 급하게 내리는 눈이 담비 가죽옷에 가득 내렸네."[5]라고 하였으며 "창을 비껴 쥐고 시를 짓는 것도 더 이상 옛날처럼 하지 못하나, 꿈속에서도 아직 옛 梁州 땅을 맴돌고 있네."[6]라고 말할 정도이다. 남정을 떠난 뒤에는 成都로

4) <書憤>: "樓船夜雪瓜洲渡, 鐵馬秋風大散關."
5) <三月十七日夜醉中作>: "去年射虎南山秋, 夜歸急雪滿貂裘."
6) <秋夜登城北門>: "橫槊賦詩非復昔, 夢魂猶繞古梁州."



www.kci.go.kr

갔다가 다시 蜀州, 嘉州, 榮州 등지를 전전하고 다시 성도로 돌아왔는데, 이 시기에 비록 관직을 맡았으나 지난날의 꿈과 포부를 실현할 기미는 보이지 않아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에서 오는 실망으로 정치적 고민이 컸다. 이에 茶樓와 酒樓를 드나들며 고민을 풀고자 하였는데,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퇴폐적이고 방탕하다고 비웃고 이로 인해 면직을 당하게 되자 그는 스스로 호를 放翁이라 지었다. 이 시기의 시에서도 육유는 金나라를 몰아내고 중원 땅을 수복하려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남정 시기의 우국시가 호방하였다면 성도를 비롯한 촉지 시기에는 침울한 기조로 바뀌었다. 육유는 뒤에 자신의 전부 작품을 ≪劍南詩稿≫라고 命名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이 시기의 생활과 작품을 얼마나 중시하고 그리워하였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육유의 아들은 그가 蜀地를 하루도 마음에서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7] 육유는 남정을 포함하여 蜀地 전반에 대해 잊지 못할 많은 추억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詞에는 이전에 한때 그래도 기대에 불탔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거듭해서 나타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는데, 이런 심정과 내용을 나타내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對比' 수법이 가장 유력한 표현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는 짧은 시기인 南鄭과 촉 지방에서의 경험을 그 이후 다른 어느 시기, 어떤 기간보다도 뜻 깊은 것으로 머릿속에 확고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육유는 86세라는 장수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일관되게 중원 수복을 주장하였으나 뜻을 이룰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자연 "때는 놓치기 쉽고, 뜻은 이루기 어려운데, 귀밑에 흰 머리 생겨나네."[8] "오랑캐 아직 소멸되지 않았는데. 귀밑머리가 먼저 가을 서리처럼 하얗게 변했고, 눈물만 부질없이 흐르네."[9] 등과 같이 세월의 흐름과 뜻을 이루지 못함의 대비 표현이 생겨나는 것이다. 참고로 詩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육유가 49세 때

7) 陸子虞, <≪劍南詩稿≫跋>: "先君太史……心固未嘗一日忘蜀也."
8) "時易失, 志難成, 鬢絲生."(<訴衷情>)
9) "胡未滅, 鬢先秋, 淚空流."(<訴衷情>)



www.kci.go.kr

蜀州에서 成都로 돌아가는 길 도중에 지은 <三月十七日夜醉中作>은 報國의 뜻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며 과거의 즐거웠던 한 때를 떠올리며 침통한 심정을 표현한 시인데, 東海 가에서 고래를 회쳐 먹던 그 옛날, 가을에 南山에서 호랑이를 사냥하던 昨年의 일을 회상하고, 이어서 노쇠하고 의기소침해졌으며 머리가 희끗해지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얼굴을 거울에 비추기도 스스로 부끄러운 今年의 사정을 차례로 이야기하였다. 육유는 48세 때에 漢中에서 호랑이를 잡은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 뒷날 두고두고 자랑삼아 여러 시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10] 이 시는 비록 끝부분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면 아직도 호기롭다는 점을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悲憤이 서려 있으며, 對比의 수법을 사용하여 옛날과 지금의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렇게 특정 時空上의 대비 수법을 사용한 詞는 과거를 회상하는 懷古詞, 특히 蜀 지방을 회상하는 懷蜀詞에 많이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른바 憂國詞 뿐만 아니라 隱逸詞, 또는 閑適詞에도 보여, 실제론 육유 사의 전체 내용에 두루 보인다. 제작 시기로 볼 적에도 대비 수법의 운용은 현존하는 작품과 가지고 이야기하여도 거의 초기서부터 晩年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2. 풍격상

대비 수사법의 표현은 특히 육유 사의 沈鬱悲涼한 風格을 형성하는 데에 일조를 하기도 한다. 특정 時空 대비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결과, 내용상 懷古詞가 많고, 憂國과 신세와 관련된 비분을 嗟歎의 情調로 노래하였다.

10) 이를테면 <憶昔>: "挺劍刺乳虎, 血濺貂裘殷.", <建安遣興>: "刺虎騰身萬目前, 白袍濺血尙依然." 등.



www.kci.go.kr

<訴衷情> 소충정

當年萬里覓封侯, 그 옛날 萬里 길 떠나 제후로 봉해질 공을 세우려
匹馬守梁州. 匹馬로 梁州에 가서 지켰다네.
關河夢斷何處? 函谷關과 黃河를 수복하려던 꿈은 어디에서 깨졌나?
塵暗舊貂裘. 먼지만이 옛 담비 가죽옷에 자욱하네.

胡未滅, 오랑캐 아직 소멸되지 않았는데
鬢先秋, 귀밑머리가 먼저 하얗게 되어
淚空流. 눈물만 괜스레 흐른다.
此生誰料, 이 한 평생 어떻게 될지 누가 예상이나 하였겠나?
心在天山, 마음은 天山에 있는데
身老滄洲! 몸은 물가에서 늙어가네.

'梁州'는 여기서 南鄭을 가리킨다. '關河'는 函谷關과 黃河를 가리킨다. 上片은 過去의 회상을 통하여 現在와 對比하면서 壯志를 이루지 못한 아픔을 드러내었다. 처음의 두 구 "그 옛날 萬里 길 떠나 제후로 봉해질 공을 세우려 匹馬로 梁州에 가서 지켰다네."는 옛날 抗金의 전선인 南鄭에서 보낸 軍營 생활을 회상하는 것이다. 이어서 3, 4구 "函谷關과 黃河를 수복하려던 꿈은 어디에서 깨졌나? 먼지만이 옛 담비 가죽옷에 자욱하네."라고 한 것은 罷官을 당한 뒤 고향에 돌아와 있는 현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上片이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상의 對比라면 下片은 '天山'과 '滄洲'라는 공간상의 對比로, 壯志를 이루기 어려워 실망 가득한 悲憤을 하소연하였다. 전체 작품이 沈鬱頓挫한 특색을 보인다. 육유의 사를 평해 劉克莊은 "放翁의 長短句 중, 激昂되고 感慨한 것은 稼軒(辛棄疾)이라도 그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11]고 했고, 楊愼은 "放翁詞는……웅장하고 강개한 점은 東坡(蘇軾)와 닮았다."[12]라고 말했는데, 대비 수사법을 운용한 이 詞

11) ≪後村詩話續集≫: "放翁長短句, 其激昂感慨者, 稼軒不能過."
12) <放翁詞跋>: "放翁詞……雄慨處似東坡."



www.kci.go.kr

의 경우를 가지고 본다면 타당한 평이라 할 수 있다.

<謝池春> 사지춘

壯歲從戎, 壯年에 南鄭에서 從軍하니
曾是氣呑殘虜. 그 때는 일찍이 기개가 쇠잔한 오랑캐를 삼킬 듯 하였네.
陣雲高、狼煙夜舉. 軍陣을 뒤덮은 구름은 높고 봉화는 한밤에 치솟아 올랐네.
朱顔青鬢, 붉게 윤이 나는 얼굴과 검은 귀밑머리의 나는
擁雕戈西戍. 꽃무늬 아로새긴 창을 쥐고 서쪽 전선을 지켰네.
笑儒冠自來多誤. 갓을 쓴 서생은 본래 쓸 모 없어 잘못함이 많다고 비웃으면서.

功名夢斷, 功名을 세우려던 꿈은 깨지고
却泛扁舟吳楚. 고향에서 작은 배 띠우네.
漫悲歌`傷懷弔古. 부질없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 일 생각하고 슬퍼하네.
煙波無際, 안개 자욱한 물결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望秦關何處? 바라보노라 函谷關은 어느 곳에 있나?
歎流年又成虛度. 물처럼 흐르는 세월 또 헛되이 보내는 것을 탄식하네.

이 사는 대략 벼슬을 그만두고 山陰으로 돌아가 고향에서 한적하게 지내면서 지은 것이다. 上片은 과거의 회상으로, 남정에서의 從軍 생활을 묘사하였으며, 下片은 지금의 감회로, 西北 前線에서 동쪽으로 돌아온 뒤 江南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울울함을 묘사하였다. 前後가 對比를 이루며, 작품에 깊은 感慨가 깃들어 있다.

육유는 南宋 豪放詞派 중의 한 사람으로 몇몇 작품들은 辛棄疾派 詞人으로서의 豪放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辛棄疾의 雄健剛勁한 豪放詞風과는 다른 점이 있어 陸游詞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陸游詞는 豪放한 가운데에 悲凉한 色彩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



www.kci.go.kr

면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는 구절과 功業을 이루기 어렵다는 구절을 앞뒤에 배합시켜 對比를 통하여 悲涼한 감정의 基調를 표현하기 좋아한다는 점이다.[13] 다시 말해 對比의 사용은 바로 이러한 풍격 특색을 형성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Ⅳ. 끝맺으며

'對比'는 여러 작가들이 常用하는 修辭法의 하나이나, 陸游詞에서는 특히 '對比'가 집중적이고도 수량상 많이 쓰였으며 다른 작가와 다른 특색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에 대한 고찰은 육유의 사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육유의 사에 대비 수법의 표현이 많은 것은 육유의 실제 생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육유의 생활 자체가 크게 보아 중년의 종군 생활과 만년의 퇴은 생활로 前後 대비를 이루기 때문이며, 일생토록 中原 收復을 갈망하였으나 현실에서 이를 이룰 수 없었기에 소망과 현실, 세월의 흐름과 뜻을 이루지 못함의 대비 표현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육유는 대비라는 표현 방법을 즐겨 사용하여 자신의 문학에 독특한 특색을 보인다.

첫째, 대비 수법 운용의 유형에 있어서, 육유는 時空對比, 今昔對比, 情景對比, 動靜對比, 虛實對比, 彼我對比, 그리고 기타 등 다양한 유형의 대비 표현법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今昔對比가 많으며, 수도 임안, 남정, 그리고 촉지 등의 특정한 時空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특색을 보인다.

둘째, 내용상, 대비 수법의 운용은 愛國詞, 또는 懷古詞, 隱逸詞를 비롯하여 다른 내용에서도 보인다. 또 때로는 꿈과 현실 간의 강렬한 대비를

13) 付橋生・劉瑞鳳, <陸游詞的語言風格淺析>, ≪廣東教育學院學報≫, 2004年 S1期. 이러한 예로는 위에서 든 것 외에도 <漢宮春>, <鵲橋仙-華燈縱博> 등이 있다.



www.kci.go.kr

통하여 중원 수복의 큰 포부는 이루지 못하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외의 다른 제재나 내용의 작품에서도 대비 수법의 시용이 보인다.

셋째, 풍격상, 육유 사 '대비' 수사법 운용은 왕왕 沈鬱悲涼한 풍격을 형성하여, 그 결과 육유 사의 대표 풍격 중의 하나인 豪放 悲壯 풍격의 형성에 얼마간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 논한 육유의 대비 수법 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은 비단 詞라는 장르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르, 예컨대 詩에도 많이 보이니, 다시 말해 육유 문학 중 주요 특색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육유 사에 나타난 대비 수법의 운용 특색을 살피는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전체 육유 사에까지 범위를 넓혀, 육유 사의 내용 및 육유의 사상 등 육유 사의 특색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 <參考文獻>

夏承燾·吳熊和, ≪放翁詞編年箋注≫(北京: 中華書局), 2001.
王雙啓, ≪陸游詞新釋輯評≫(北京: 中國書店), 2001.
陳望道, ≪修辭學發凡≫(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
李致洙, ≪陸游詩研究≫(臺北: 文史哲出版社), 1991.
李致洙, ≪陸游詩選≫(서울: 문이재), 2002.
李致洙, ≪陸游詞選≫(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李致洙, <放翁詞에 나타난 遠隔世界>, ≪人文學叢≫, 第11輯, 1986.
王熙元, <詞的對比技巧初探>, ≪古典文學≫, 第二集, 1980年.
唐月琴, <試論李清照、陸游、辛弃疾詞作的對比手法>,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3年 第20卷 第4期.
付橋生·劉瑞鳳, <陸游詞的語言風格淺析>, ≪廣東教育學院學報≫, 2004年 S1期.



www.kci.go.kr

## <中文提要>

對比是不少作家使用的修辭法之一, 陸游在詞中運用對比手法的次數頗多, 喜歡運用對比這修辭法來抒情敍事. 陸游善於運用對比手法, 借對比, 表達複雜微妙的心態, 感染力很强. 陸游的對比運用, 還具有與別的作家不同的特色. 對此進行考察, 就可以更加深地了解陸游詞的面貌與特色.

陸游運用對比修辭法, 在類型上有如時空對比, 今昔對比, 情景對比, 動靜對比, 虛實對比, 彼我對比等, 表現形態比較豐富. 在這些類型中, 今昔對比佔多數. 尤其陸游一再反復談起特定時期與特定空間, 如南宋首都臨安與包括南鄭在內的蜀地, 此爲陸游運用對比手法的獨特之處. 陸游在詞中多用今昔對比手法, 是基於他的實際生活, 陸游終其一生, 渴望中原收復, 而在現實上却無法實現, 就產生理想與現實, 歲月流逝與壯志難成之間的强烈對比表現. 在內容上, 對比修辭法的運用除了見於愛國詞, 或者懷古詞, 隱逸詞之外, 還在其他題材中亦可時時發現. 有時夢境與現實互相形成對比, 通過夢境與現實之間的强烈反差來表現作者對壯志未酬, 歲月空度的悲歎. 在風格上, 陸游詞運用對比修辭法往往對於形成沈鬱悲涼風格有所作用, 有助於形成作爲陸游詞的代表風格的豪放悲壯.

上面所言種種有關陸游運用對比修辭法的情況, 不僅見於詞, 還見於詩, 可以說是陸游文學在表現上主要特色之一.

주제어 : 陸游詞, 對比, 沈鬱悲涼, 臨安, 南鄭, 蜀地, 山陰



www.kci.go.kr